

선차의 향기... 차 한잔으로 깨달음을 얻다

차의 맛을 선에 담다

최석환 지음



‘차운선미’(茶韻禪味)라는 말이 있다. 차의 맛을 선에 담는다는 말이다. 오직 차의 맛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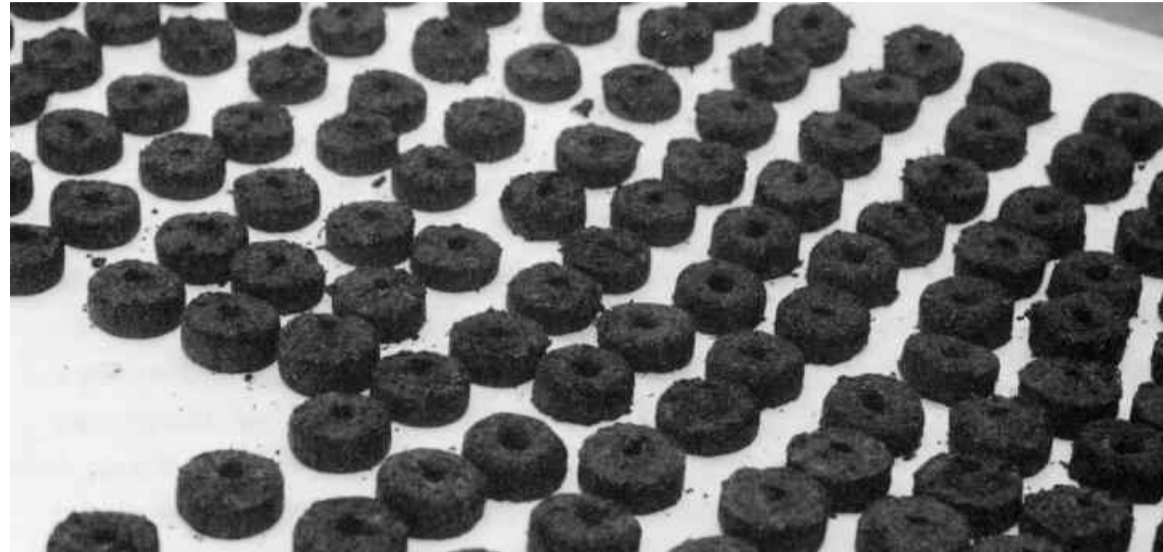
일찍이 차와 선이 불가에 전해 오면서 ‘식후에 차 세잔’이라는 기풍이 이어져왔다. 선가(禪家)에서는 많은 이들의 차의 맛이 선의 맛이었고. 선승들은 차를 앞에 두고 깨달음을 연상시키는 화두를 던지곤 했다. 차와 선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방증이다.

사실 우리나라 차문화 역사는 1500여 년 됐다. 차는 예술과 종교, 학문 등과 어우러지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차는 오랫동안 우리의 역사와 함께 했다.

선차문화를 새롭게 발굴 조명하는 책 ‘차의 맛을 선에 담다’가 출간됐다. 최석환 한국국제선차문화연구회 회장이 저자로, 그동안 ‘한국의 차인’, ‘천년의 차향’, ‘한국 차문화 천년의 숨결’ 등을 펴냈다. 이밖에 저자는 ‘한·중 차문화 교류사’ 등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세계선차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저자가 따르면 2000년 초반 까지만 해도 선차는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다 신라의 무상선사가 중국 오백년 455번째 조사에 오른 사실이 밝혀지면서 선차에 관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밝혀졌다.

책은 동아시아 차의 현장에서 이어져온 명차들을 토대로 차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뒀다.

저자는 5000년 전 신농씨가 차(茶)를 발견한 이래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차가 발전됐다고 본다. 그 가운데 선차(禪茶)를 말할 때 신라의 무상선사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차선일미를 추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동선이라는 인물이 무상선사를 찾아와 차를 올리니 매우 기뻐했다는 고사가 나온다.



불회사 스님의 자문을 받아 재현한 돈차의 모습. 돈차는 찻잎을 찌서 둥그렇게 빚어 가운데 구멍을 내 말린 차를 말한다. <책의 세계 제공>

책에는 제다, 한국의 명차, 차명인들 등 차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나온다.

먼저 저자는 차가 시작된 이래 차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한다. ‘신농식경’에는 ‘차를 오래 복용하면 사람에게 힘이 솟게 하고 즐겁게 해준다’고 나와 있다. ‘식론’에서는 ‘쓴 차를 오래 복용하면 생각이 깊어 든다’고 말한다. 중국의 저명한 차인 왕슈핑은 “차와 사람의 관계는 최초 약용에서 시작되어 나중에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찻잎을 찌서 둥그렇게 빚어 가운데 구멍을 내 말린 차인 돈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특히 1938년경 보도된 나주 불회사의 돈차에 관한 기사를 소개하며 1000년 전 나주에 차문화가 발전했음을 강조한다. 몇 해 전 불회사가 돈차 방식을 빌려 떡차 형태로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다.

“햇볕을 쬐인 뒤 뜨거운 구멍목에 밤새워 말린 뒤 다음날 엽전 형태의 목판에 작은 구멍을 뚫어 새끼를 꿰어 그늘에 말린다. 지름이 아홉 톨(약 2.3cm), 두께가 두 톨(약 0.5cm)인 것은 옛 방식과 같아 보였다. 다만 불회사 돈차는 잎을 굵기 약재를 가미한 약차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아울러 책에는 ‘사람 냄새 풍기는 구둑마을 사람들’, ‘중국의 선차 서원에 대한 단상’, ‘일본 교토 무사노코지 센케에서 열린 일기일회 차회’ 등의 순례기 등을 토대로 한 한·중·일 선차 문화가 펼쳐져 있다

저자는 “차(茶)라는 글자에서 풀(草) 아래에서 나무(木) 사람(人)으로 포용하고 있듯 차는 사람과 자연과 인간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책의 세계> 3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수학은 우주로 흐른다=수학을 평생 연구해 온 수학자 송용진이 펴낸 인문 교양서다. 수학에서 출발해 과학, 종교, 문화, 역사 등을 탐색한다. 0의 탄생 배경, ‘수학’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수학과 과학이 분리되는 과정, 문명에 끼친 영향 등을 이야기한다. 또 기독교와 라틴어가 과학 발전에 끼친 영향, 유럽이 브랜드를 음료수처럼 마시게 된 배경 등도 분석했다. <브라이트> 1만8000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 사람인 에디 제이쿠가 쓴 회고록. 그는 1938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벨기에·프랑스 등의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며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참혹했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말하며 하루하루를 충만히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한다. <동양북스> 1만6800원

▲술을 술 끊을까 생각할 때 읽는 책=도쿄알코올의료종합센터의 센터장인 가카부치 요이치가 자신의 음주 패턴을 바탕으로 금주 대책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준다.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와 점수별 대책을 수록했으며 술에 강한 체질, 약한 체질, 알코올 의존증에 걸리기 쉬운 체질 등 다섯 가지 알코올 체질 유형을 살펴본다. <코리아닷컴> 1만4000원



▲남극대륙=1755년 대륙의 첫 발견 이후 200년간 일어난 개척자들의 도전의 기록이다. 라트브르대학교 부연구교수인 저자 데이비드 데이는 탐험가들과 개척자들이 왜 남극대륙에 닿고자 했는지, 그것은 왜 성공 혹은 실패했는지, 주인 없는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각국의 분쟁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기록을 통해 소개한다. <미다스북스> 4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정말정말 신기한 환상동물 백과사전=세상 어디에도 인간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산다고 알려진 환상동물 이야기 그 그림들과 함께 생생하게 펼쳐진다. ‘환상동물 지킴이’인 소녀 앤이 쓴 기록장으로 꾸며진 이 책에서는 세계 신화나 전설, 옛이야기 등 세상에 알려진 각종 환상동물 이야기가 총출동하며 전 세계 19개국에서 잇달아 출간됐다. <별글> 1만7000원

▲벤치=영국 해리 왕자의 부인 메건 마클이 처음 출간한 그림책이다. 남편인 해리 왕자와 아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부자의 일상 속 따뜻한 장면을 엄마의 시선으로 포착했다. 마클은 작가의 말에서 ‘벤치

는 (아들) 아치가 태어난 달인 아버지의 날에 제가 남편에게 적어준 시로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칼데라 명예상 수상자가 아동 도서 삽화인 크리스티안 로빈슨이 그림을 그렸다. <다림> 1만4000원

▲겨울 해질녘=수업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선 아이는 강가에서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한다. ‘슬퍼요, 또 하루가 갔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온 유리 솔레비츠가 이번엔 겨울의 시간 풍경을 그렸다. 전반부에서 자연의 빛이 이뤄내는 해 질 녘 풍경을, 후반부에선 가로등과 장식 조명으로 빛나는 도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시공주니어> 1만3000원

코로나 시대 자연과 사회·인간 공존의 길을 묻다

아크3-자연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에서 만드는 인문 무크지라니. 처음 300여페이지 두툼한 분량의 잡지 ‘아크’를 받았을 때 놀라웠다. ‘아크’는 부산에서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대표 허동운)가 발행하는 무크지다. 출발은 강의였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상지인문학아카데미’는 300회가 넘는 강의를 진행했고 지역 인문학자들이 강사로 참여, 동반 성장을 이뤘다.

‘아크’는 새로운 시대와 소통하고 미래와 조응하기 위해 공존의 가치를 던지는 인문 무크지를 표방한다. 인간과 세계의 근원에 대한 성찰을 창간 취지로 삼은 책은 문학, 역사, 철학을 기반으로 예술, 공간, 도시, 건축, 미디어, 일상생활 등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강

의와 마찬가지로 필진 역시 지역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권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장간호의 ‘휴먼’과 두번째 권 ‘믿음’에 이어 이번엔 출간된 ‘아크 3’의 주제는 ‘자연’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인류의 생활 방식에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자연’의 인문적 의미를 환기하고 새롭게 상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선택한 주제로 모두 20편의 글을 만날 수 있다.

정훈 문학평론가는 첫 글 ‘없는 곳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에서 ‘사람이 나아가야 할 길을 묻게 만드는’ 다석 류영모(1890-1981)의 사상을 이야기한다. 또 하창수 문학평론가는 ‘인간에 비취 본 자연’이라는 글에서 하늘, 숲, 나무, 바위, 바다를 소재로 펠릭스의 ‘모비딕’, 다니엘 호든의 ‘큰 바위 얼굴’ 등 동서양의 고전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또 이성철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연과 사회의 공생은 꿈속의 꿈일런가’를 통해 생태학적 사고의 필요를 역설하고, 류영진 기타큐슈시립대 지역전략연구소 교

수는 ‘일본인들의 자연과의 거리두기에 대하여’라는 흥미로운 글을 실었다.

차운석 동아대 건축학과 교수의 ‘자연, 건축의 가치, 그리고 프리츠커상’, 영화 ‘그린 나이트’와 ‘모노노케 히메’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조재휘 영화평론가의 ‘근대 인간과 자연의 역운(逆運)’, 스페인 빌바오 네르비온 강에 설치된 오르즈코의 조각 작품 ‘익사하는 소녀’ 등을 소개한 김중기 부산민주공원 관장의 ‘그림 속의 자연 이야기-기후 위기, 그리고 미술’ 등의 글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광주전남연구원 김준 연구원은 ‘한국의 갯벌, 쓸모없는 땅과 세계유산 사이’ 글을 실었으며 김홍도의 ‘주상관매도’(舟上觀梅圖)를 통해 동서양 회화와 사상에 담긴 자연에 대해 풀어낸 ‘무의 들녘에서 만난 매화’(이성희 시인)도 만날 수 있다.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무위자연의 정신으로 살기’처럼 ‘부산’이라는 지역성을 살린 글들도 눈에 띈다. <호말발> 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